

간경변증의 증상과 치료

서 동 진 <고려대 의대 내과 교수>

● 증상

간경변증의 증상은 그 원인에 상관없이 비슷하다.

첫째로 간세포가 광범위하게 파괴되므로 간기능을 수행해야 할 간세포의 절대수가 부족하여 초래되는 간부전(肝不全) 증상,

둘째로 간에 섬유질이 들어차고 재생결절이 생김으로써 간이 굳어지면서 간내의 혈류에 장애가 오는 소위 문맥압 상승의 증상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그러나 간경변증환자의 25% 정도는 증상없이 천수를 누린다는 통계도 있으므로 간경변증이라고 모두 심한 증상에 시달리는 것은 아니다.

간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학공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부전이 발생하면 여러 대사과정의 장애가 나타난다. 탄수화물의 생성과 저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당뇨병상이 나타나 혈당이 높아질 수 있다. 알부민을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져 혈중 알부민치가 감소하고 그 결과 복수 및 부종이 생길 수 있다. 혈액응고 인자의 생성능력이 떨어져 쉽게 잇몸이나 코에서 피가 난다. 적혈구가 수명을 다하여 생긴 빌리루빈을 간에서 처리하고 배설해야 하는데 간경변증때에는 빌리루빈 대사의 장애로 황달이 생기기도

한다. 음식으로 섭취한 단백질은 장에서 암모니아로 분해되어 간으로 흡수되면 적절히 처리하여 배설되는데 간경변증때에는 암모니아가 혈중에 많이 고이고 그 결과 간성 혼수가 나타나게 된다.

간기능이 감소함으로써 가장 흔히 느끼는 증상은 피로감이다. 심한 무력감으로 가벼운 일상활동도 힘든 수가 많다. 얼굴은 거무튀튀해지고 목주위에는 거미줄같은 혈관의 확장이 나타난다. 남성은 여성처럼 유방이 커지는 수도 있고 겨드랑이 털이나 음모가 빠지고 성욕도 감퇴한다. 입맛이나 소화 같은 소화기기능의 저하도 함께 동반된다. 배표면의 혈관이 확장되고 배는 복수가 차서 불러진다. 정맥이가 부어서 누르면 쑥쑥 들어가며 손바닥은 혈관이 확장되어 시뻘겋게 변한다. 배를 진찰하면 간이 울퉁불퉁하고 굳게 만져져서 왼쪽 갈비뼈 밑으로는 비장이 크게 만져지기도 한다.

우리 몸에 투여된 약제는 대부분 간에서 처리되어 몸에 해롭지 않은 상태로 변형되고 담즙이나 소변으로 배설된다. 즉 간은 일종의 정화조 역할을 하는 셈이다. 간경변증 때에는 투여된 약물의 처리시간이 지연되고 처리능력이 감소되므로 약의 작용시간이 길어지고 약의 부작용이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이 많다. 또한 간에 좋으리라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먹은

약들이 도리어 간독이 되어 나머지 간기능마저 악화시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문맥압 상승의 합병증은 복수, 식도정맥류, 출혈 그리고 간성혼수를 들 수 있다.

복수는 가장 흔히 보는 증세로서 뱃속에 물이 차는 것이다. 오줌량이 줄면서 체중이 늘고 배가 불러져 허대가 작아지며 심하면 배꼽이 빠져 나오기도 한다. 대게 다리의 부종이 함께 나타난다. 복부의 팽창이 심하면 호흡근관이 울 수도 있다. 간경변증이 되면 간을 통하여 심장으로 흐르는 혈류에 장애가 초래된다. 그 결과 심장으로 새끼를 형성하여 혈액이 흐르게 된다. 새끼는 식도, 배꼽면 또는 항문에 생기는데 식도에 생긴 정맥류는 좁은 혈관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서 심한 출혈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가장 문제가 된다. 평소 간경변증이 있는 것을 모르다가 갑자기 피를 토하고 까만 똥을 누며 쇼크에 빠져 사망할 수도 있다.

간성혼수는 간에서 처리되지 못한 암모니아를 위시한 질소산물이 뇌기능을 억제하여 초래된다. 간단한 계산도 못하도록 지능이 떨어지며 쉽게 울고 웃거나 성격장애가 오고 밤낮의 수면습관이 변하고 점점 심해지면 혼수상태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 있다.

“

간경변증은 일단 생기면 정상간으로 회복되지 않으나 간기능은 정상으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치료

간경변증은 간에 굳은 살이 찌고 재생결절이 생기는 상태이므로 이미 곰보처럼 엷은 간의 모양은 정상으로 돌이킬 수 없다. 그러나 간은 재생능력이 왕성하므로 적절한 치료를 통하여 간기능을 회복하고 유지시킬 수 있으며 악화되는 것을 막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 즉 파괴된 간세포의 재생을 가능한한 돕고 합병증의 발생을 예방하며, 일단 합병증이 생기면 이를 적절히 치료하는 것이다. 또한 간경변증 환자에게는 간암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사로 간암의 조기발견에도 유념해야 한다.

우선 적절한 영양공급과 휴식이 치료의 기본이다. 파괴된 간의 재생을 돕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많은 균형있는 식사가 필요하다. 단백질은 보통 60g 이상이면 족하다. 살코기로 약 300g에 해당되는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등 종류에 관계없이 섭취하도록 한다. 개고기나 토룡탕 또는 굴뎡이가 간에 좋다는 근거는 없다. 지방질도 구역질이 심하여 기름진 음식이 받지 않거나 또는 먹은 후 설사가 나지 않는다면 제한할 필요가 없다. 또한 어떤 특정한 음식을 약처럼 먹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쇠고기가 좋다고 매일 로스구이만 해먹

는다면 일주일도 못가서 질려 버릴 것이다.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는 된장국이나 김치찌개 등 입맛에 맞게 조리해 먹는 것이 이상적이다. 여러 종류의 음식을 골고루 먹음으로써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 간질환때에는 비타민의 결핍이 오는 수가 많고 특히 B, C가 그렇다. 신선한 야채나 과일도 자주 먹도록 한다. 출혈경향이 있으면 비타민 K를 주사하기도 한다. 복수가 차고 다리에 부종이 생기면 음식내의 염분을 제한하여야 한다. 섭취한 염분을 적절히 배설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으므로 먹는대로 몸안에 수분과 함께 축적되기 때문이다. 또한 간성혼수가 오면 일시적으로 식사내의 단백질을 제한하여야 한다. 섭취한 단백질이 장에서 분해되면 간성혼수를 일으키는 암모니아의 생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간으로 흐르는 혈류는 서있을 때보다 누워 있을 때 월등히 많아진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안정을 권하고 있다. 간경변증이 심하면 우선 피곤하므로 환자 스스로 안정을 원하게 된다. 그러나 간경변증 환자라고 무조건 매일 누워 있을 필요는 없다. 간부전의 증상이 심할 때는 쉬어야 하지만 회복되

면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능하다. 그러나 몸이 피로를 느낄 정도로 과로를 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무리한 생활방식은 제한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간경변증 환자에서 섬유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여러 약제가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 실험단계이다. 간세포의 파괴를 막고 재생을 촉진시키는 특효약은 아직 개발되지 못한 상태인 반면 파괴를 촉진시키는 약제들은 무수히 많다. 섭취한 약물들의 대부분은 간에서 대사, 처리되고 그 과정에서 간을 손상시킬 수 있는 독성물질이 생길 수 있다. 특히 간경변증 환자는 장기간 투병하는 동안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러가지 양약, 한약, 또는 생약을 남의 말만 믿고 복용하다가 나머지 간기능마저 악화시키기 쉽다. 병든 간은 쉬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복수, 간성혼수, 식도정맥류 출혈과 같은 합병증이 생기면 적당히 자가치료를 하지 말고 곧 병원에 가서 치료하도록 한다. 간경변증은 일단 생기면 정상간으로 회복되지는 않으나 간기능은 정상으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에 걸쳐 주치의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다. ☺